‘설 명절 종합대책 추진’

익산시, 29일부터 5일간… 분야별 특별대책 마련·비상 연락체계 유지

익산시는 시민들이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과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25일 시는 연휴 기간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코로나19 종합방역, 성묘객, 물가안정, 교통·안전, 환경 등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연휴를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생활방역 대책과 종합상황실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14일 경과 후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등에 대한 사적 모임을 최대 6인까지 허용하고 생활 방역수칙을 홍보한다.

코로나19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상황대책반, 의료대책반을 보건소에 설치하여 의심환자와 유증상자 등을 관리한다.

또한 선별진료소 운영, 자가격리자 이송, 격리자 현장 출동, 검체 관리 이송 등 신속한 비상진료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재난 문자, SNS 등을 활용해 설 연휴 이동자제 및 코로나 진단검사 시행을 홍보한다.

재난재해대책반에서는 민원신고대응반을 설치해 방역수칙 위반 민원 신고에 대응하며, 자가격리 24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체육진흥과 등 10개 부서는 다중이용시설을 불시 방문해 방역 점검할 예정이다.

설 연휴기간인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공원묘지·봉안당 등 팔봉공설묘지 전체시설을 전면 폐쇄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휴 전인 1월 26일부터 1월 28일 후인 2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총 5일간 사전예약제로 성묘가 가능하며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성묘 서비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각종 상거래 질서 유지 등 물가 동향을 관리하는 한편 설 성수품 가격 점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 명절 전후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통종합대책반은 교통 불편 민원에 대한 신속한 접수·처리로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용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 명절 이동자제 홍보, 출입구 발열체크 등 더욱 철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상하수도대책반은 연휴 내 단수 등 비상사태에 신속 대응한다.

아울러, 시는 특별 청소반을 3개로 구성하여 설맞이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와 도로변 및 진입로 중점 대청소, 쓰레기 기동처리반 운영 등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악취 민원 대응을 위한 축산악취대책반도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 중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대한 관리 소홀이 우려됨에 따라 연휴 기간에 악취 민원 신속 처리를 위한 특별감시에 나선다.

/익산=이득훈 기자

군산시, ‘제3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총력

매년 8월 8일 고군산군도 일원

군산시는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제3회 섬의 날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섬의 날(매년 8월 8일)’은 섬의 가치와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지정된 정부 기념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기념행사로 행정안전부 주최, 전라북도와 군산시 주관으로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56개(유인섬 16, 무인섬 40)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군산은 이번 행사를 개최하며 전시·체험을 통한 섬의 매력과 가치를 홍보하고 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본 행사에는 군산시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섬에 대한 전시장이 운영되고, 선유도 등 고군산군도를 직접 관광·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메타버스, 실감콘텐츠 등을 활용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 오는 8월 8일부터 8월 14일(7일간)까지 국민 모두가 쉽고 편하게 즐기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 19로 지치고 힘든 시기지만 국민 모두가 섬을 통해 위로받고 즐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같은 기간에 군산에서 펼쳐지는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8/12~8/15)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발휘,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해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친환경선박 대체연료 추진시스템 플렛폼 구축사업 추진

군산시는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저인화점 대체연료 추진 선박 관련 핵심 기자재 실증 기반을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4년까지 3년 동안 국비 70억 등 총 100억의 예산을 통해 저인화점 연료 추진시스템 핵심기자재 성능검증을 위해 연료공급시스템과 제어시스템 실증 설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강화 정책 시행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20년 12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30년까지 국내 선박의 15%인 528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인 40만톤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 LNG기술을 보유했으나, 저탄소 대체연료 선박 관련 연구개발은 초기단계로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실증 플랫폼 선점을 통해 지역 조선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에 관련 분야 설계 및 엔지니어링 기술을 보급하여 중소형 친환경 선박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신기술 품질개발과 기술보급을 통한 기업유치를 통해 친환경 선박시장의 선점 등 군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가 안전 생산, 안심 소비, 안정 공급 3박자를 모두 갖춘 푸드플랜을 추진한다.

안전 생산, 안심 소비, 안정 공급

익산 푸드플랜,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제공

익산시가 안전 생산, 안심 소비, 안정 공급 3박자를 모두 갖춘 푸드플랜을 추진한다.

시는 푸드플랜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체계를 구축해 도농이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시민이 행복한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토대로 6대 전략 10개 전략과제가 포함된 도농복합형 중장기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추진기반을 다져왔다.

이 과정에서 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1순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하며 오는 2025년까지 총 10개 사업에 116억원(국도비포함)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핵심사업인 푸드플랜 APC 건립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올해 완공할 계획이다.

이어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익산다이로움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개장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는 학교·공공급식, 도농상생사업, 먹거리복지, 민간협력사업, 건강먹거리 교육·홍보 등 단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직매장 확충 등 농가를 조직화했다.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이어 지난해 모현점을 개장하였으며, 개장 시점에 참여한 490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1천100여 품목을 구성하여 성공리에 직매장 개장과 조기 안정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동안 시는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직매장 지원사업과 지역 중소농업인의 로컬푸드 생산, 직매장 출하, 생산 품목 확대에 지속 투자를 해온 결과 로컬푸드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25%의 매출이 증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또한 2020년 전국 로컬푸드지수 D등급에서 2021년 측정결과 B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로컬푸드직매장 확대로 농가의 소득 창출과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려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에게는 신뢰받는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안전한 학교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친환경농산물과 무상급식비 예산을 지난해 대비 5.3% 인상된 198억4천백만원으로 확대 투입한다.

기존 무상급식 1인당 급식단가를 200원 인상하여 인상분 중 100원을 Non-GMO 로컬가공품 우선 구매 비용으로 사용하고, 5천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 전북 지자체 최초로 Non-GMO 국내산 유채유를 시범적으로 공급하여 학교급식의 안전성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 모두를 확보할 예정이다.

공공급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거점시설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시설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도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푸드플랜 APC 사업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 5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는 HACCP 시설 인증에 적합한 농산물 집하·소분·포장·전처리시설, 사무공간을 갖춘 공장동과 별도의 저온창고동, 익산푸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비를 갖추게 될 안전성 분석실 총 3개동 총 2,473㎡ 면적으로 건립되며 올 4월 착공 예정이다.

/익산=이득훈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지원 재개

익산시는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지원을 위해 비대면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단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대신해 비대면 장애인 방문재활서비스를 진행한다.

센터는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록장애인의 건강 상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해 담당자와 재활전담요원이 자가운동책자 등을 통해 비대면 방문재활 서비스를 실시했다. 또한 센터 등록장애인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안부를 확인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과 재활운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비대면 방문서비스를 제공 받아 유익했으며 안부 및 운동 안내 전화 등을 통해 집에서도 자가운동을 실시할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됐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익산=이득훈 기자

익산시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

익산시는 안정적 영농환경 조성과 소득보전 체계 확립을 위해 쌀 직불금 100억원을 지급한다.

시는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직불금 100억원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1년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 농지 중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익산시에 주소가 등재된 농업인(법인)을 대상으로 최대 5ha까지 지급한다.

총 지급면적은 1만4천527ha, 지급 인원은 1만1천693명으로 1ha당 68만4천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시비 직불금의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기자